

## 조직위·지자체 '엇박자' 내면 국제망신

성화 꺼지고 정전·흙피 다운·자원봉사자 일탈 ... 대회 운영 엉망

U대회 9개월 앞...자원봉사시스템 체계화 등 지금부터 준비를

### 이젠 광주U대회다

#### <상> 인천 아시안게임의 교훈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이 이를 앞두고 다가왔다. 선수들은 지난 4년간의 흘린 구슬땀을 다시 한번 쏟아내며 인천에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스포츠의 매력이다. <관련기사 14면>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은 운영에서 '최악의 대회'로 지적받고 있다.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혹평이 쏟아진다. 내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를 앞둔 광주에 던져준 교훈을 살펴본다.

◇인천 아시안게임 운영 엉망=개회식부터 엉켰다. 행사가 끝난 뒤 선수와 관중의 통신이 끊기면서 선수들이 수시간 동안 속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다음날 밤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회의 안녕과 흥성을 상징하는 성화를 꺼뜨린 것이다. 배드민턴 경기장에서는 정전으로 경기가 일시 중단됐고, 야간훈련을 하러는데 조명을 켜주지 않아 원성을 샀다.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에서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IT 강국'의 체면을 구긴 사고도 잇따라 터졌다. 미디어정보시스템인 'INFO 2014'가 다운되고, 공식홈페이지는 두 차례나 불통이 됐다. 선수촌과 메인프레스센터(MPC)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춰 22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한심한 일이 발생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내는 뒷전인 채 스스로 경기관람에 정신이 팔려있거나, 심지어 야구장에서는 훈련 볼을 함부로 가져다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비치발리볼장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은 카드게임을 하고, 카바디 운영 자원요원들은 화투 도박판을 벌였다. 한 경기단체 회장은 출입증이 없는 지인들을 입장시키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광신대학교**

낮 뜨거운 일들이다. 차마 '국제 스포츠 대회'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언론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만 보도했다. 아시아의 화합은 사라졌다. 외국 언론은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한국판 전국체전"이라고 비꼬았다.

◇조직위-지자체 엇박자가 부른 참사=총체적 난맥상은 예견됐다. 정부와 지자체, 조직위원회, 현장 인력의 엇박자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회 운영의 주체는 조직위다. 하지만 손님을 맞고 챙기는 일은 현지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제격이다. 손님을 챙기려면 최소한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아시안게임조직위는 인천시가 파견한 공무원들의 업무를 현장실무지원으로 한정했다. 이리다보니 인천에서 열리는 행사임에도 지역인사와 자원봉사자, 서포터즈에 대한 홀대 논란이 벌어졌다.

광주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기단체 전무이사는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종목별로 나눠 담당하고 있지만 자주 바뀌다보니 아직도 경기방식을 설명하는 실정이다"며 "채 열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의 브랜드 가치 올리려면=국제 스포츠 대회는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의 활동에서 도시의 브랜드가치는 더 높아진다.

도시의 인상은 손님맞이에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와 광주시민의 몫이다. 세계 속의 광주를 빛낼 무대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와 체계적인 시스템, 성숙한 관람문화가 대회의 기초가 돼야 한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조성희(여·48)씨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할 일을 배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며 "자원봉사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 심판' 광주지법에 쏠린 눈 ▶6면  
북스- 열애를 읽는다 ▶16면



요정의 황홀한 연기

2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승 경기에서 한국의 손연재가 곤봉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획득 메달 '4개 중 1개' 종합 2위 이끈 광주·전남 선수들

금 18 등 50여개 메달 수확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수확한 메달 4개 중 1개는 광주·전남 선수들이 일

했다. 재정 지원이 취약한 광주·전남의 체육 환경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다.

폐막을 이틀 앞둔 2일 오후 8시 현재 한국은 금메달 70개, 은메달 64개, 동메달 73개 등 총 207개로 종합 2위다.

당초 목표했던 금메달 90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5회 연속 종합 2위는 거둔 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광주·전남 선수들은 금메달 18개를 비롯해 50개가 넘는 메달을 수확했다. <관련기사 20면>

금메달의 선봉장은 김성연(23·광주 도시철도공사)과 박경두(30·해남군청)였다. 박경두의 은메달로 시작한 광주·전남 선수들의 메달 수확은 김성연이 '역습 메치기'로 첫 금메달을 했다. '열정 킬러'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순채 총잡이' 김준홍(24·KB국민은행)은 금 2, 은 2개를 보태며 아시아 최고의 저격수로 등극했다.

지역 출신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전했다. 시련을 딛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이 용대(26·삼성전기)는 배드민턴 남자 단 체전에서 월등한 실력을 뽐냈고, 부상

투혼의 양학선(22·한국체대)은 0.016점 차로 금메달을 놓쳤지만 값진 은메달을 수확, 박수갈채를 받았다.

주말엔 '여성 파워'가 돋보였다. 곡성 출신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의 맏언니 주현정(32·현대모비스)의 양보로 사대에 선 이특영(25·광주시청)은 '금빛 화살'로 답례했고, 나주 출신의 사이클 여제 나야름(24·삼양사)은 금·은·동을 끌고 루 휠승며 '황금의 주말'을 보냈다. 여고생 미녀 골퍼 박결(18·동일전자정보고)은 '환상의 금 버디'를 선보였다.

볼링에서는 막내 박종우(23·광양시청)의 시대가 열렸다. 박종우는 5인조·개인종합·마스터즈에서 '금빛 스트라이크'를 작렬, 3관왕에 등극했다. 광주우대회 3관왕 최복음(27·광양시청)은 5인조전에서 대표팀 동생들의 목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구기 종목에서도 광주·전남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핸드볼 대표팀의 핵인 무안 출신 김은아(26·인천시청)가 친동생 김선화(23·인천시청)와 함께 시상대 꼭대기에 올라 두 배의 기쁨을 만끽했다. 하키에서는 목포 출신 안호주(27·인천체육고)와 김현지(21·목포시청)는 안정적인 수비로 단 한점도 내주지 않으며 16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정구에서는 광양 출신의 주옥(25·NH농협)이 금메달을 따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박영선 '폭풍의 언덕'서 내려오다

### 새정치 원내대표 사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사진)가 2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원내사령탑에 오른 지 약 5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전체 의원에게 보낸 이메일 서한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폭풍의 언덕에서 힘들어 할 때 격려해주신 많은 동료의원와 힘내라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원내대표직,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참패 이후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아 당 혁신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나 친노(친



노무현) 강경파의 견제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게 됐다. 최근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이 가능한 법을 가능한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협상 과정에서 제가 받은 비난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도 많지만 그저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한다"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을 벌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PAT** 광주지역 **80~50%** 균일가대전

# POWER SALE

티셔츠/남방/바지 25,000원~ | 스웨터 30,000원~ | 점퍼 60,000원~

10/3(금)~10/7(화) 단. 5일간

광주금남점(지하) 062)228-3919 | 광주봉선점 062)676-8887 | 광주서방점 062)512-6495 | 광주세정아울렛점 062)370-9142  
광주송정점(상설) 062)942-0209 | 광주월곡점 062)954-2535 | 광주첨단점 062)973-0039 | 광주NC백화점 062)510-8210